

제3차 PIDA Week,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협력의 중요성 강조

1. PIDA Week 개최

《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(PIDA*) 》

* Programme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Africa

- (개요) 2040년까지 아프리카 인프라(에너지, 교통, 수자원, ICT 4대 부문) 개발 및 통합을 목표로 2012년 1월 채택된 마스터플랜(PIDA 2040)
- (목표) 중장기 전략체계 개발, 우선순위 및 단계별 계획에 입각한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수립, 우선행동계획(PAP, Priority Action Plan)* 마련 및 이행
*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51개 프로그램 및 사업 선정(단일 사업기준 433개)
- (주관기관) 아프리카연합집행위원회(AUC, African Union Commission), 아프리카신개발협력계획기획조정청(NPCA, New Partnership for Africa's Development(NEPAD) Planning and Coordinating Agency)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, African Development Bank), 아프리카경제위원회(UNECA,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)
- (협력파트너)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,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(BMZ), 독일국제협력공사(GIZ), 영국국제개발청(DFID), 남아프리카개발은행(DBSA), 미국 USAID의 파워 아프리카(Power Africa)*, EU 등
*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전력 개발 투자 프로젝트(6개국, 70억불 투입)

□ PIDA Week는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,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'제3차 PIDA Week' 개최

- 일시 및 장소 : 2017. 12. 10 ~ 12. 14, 나미비아 스와콤폴문
- 주제 : 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 개혁
- 참석자 : AUC, NPCA, AfDB, UNECA, GIZ, JICA, 아프리카 국가 정부, 민간부문, 금융기관, 학계, 시민사회 등에서 200여명 참여

2. PIDA Week의 주요 논의 내용

- (우선행동계획 이행 촉진) 제1차 우선행동계획(2012-2020) 이행을 위해 전체 약 679억불*, 연간 약 75억불 재원 소요 전망

* 에너지 403억불, 교통 254억불, 수자원 17억불, ICT 5억불

- 제2차 우선행동계획(2020-2030) 수립에 대비하여 중점 지원사업 재조정과 대규모 도로사업의 사업관리 체계 마련을 강조

- (아프리카 정부 역할 강조) 사업준비 단계부터 정부 차원에서 국가개발계획과 상기 우선행동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

- 특히, 농촌 및 취약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EU와 같은 강력한 정치, 경제, 사회 통합 유도

- (청년층* 기술인력 양성) 아프리카 청년층 기술교육은 기업의 요구 수준과 청년층 기술력 간의 격차 해소와 고용가능성 증진에 중요

*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인 약 5억명이 25세 이하 청년층에 해당

- 선진국 개발협력 파트너의 지식공유, 직업교육·훈련프로그램 확대 필요

- (사업준비 내실화) 금융지원 가능한(bankable)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해 주관기관의 사업준비 역량, 제도적·법적 체제 구축 중요성 강조

- NEPAD-인프라사업준비기금*은 아프리카 정부, 지역공동체,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검토(F/S),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여 인프라 사업의 질적·양적 향상에 기여

* NEPAD-Infrastructure Project Preparation Facility(NEPAD-IPPF) : 2005년 마련된 인프라 사업 준비 관련 무상원조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으로, AfDB에서 관리 중 (캐나다 정부 23.3백만불, AfDB 21.5백만불, 영국 DFID 14백만불 등 총 91.8백만불)

- (민간재원 동원 확대)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참여 유도

- 민관합동 대륙비즈니스네트워크*를 활용하여 재원조달 방안 논의를 활성화하고, 5% 의제**를 공유하여 기관투자자 확보 추진

* Continental Business Network(CBN) : AU 및 NPCA가 2015년 발족한 아프리카 대륙 민관합동 이니셔티브로, 개발재원 마련 및 사업 리스크 경감방안 등을 논의

** 5% Agenda : NPCA가 2017년 9월 공표한 캠페인으로, 향후 5년간 아프리카 기관투자자(연기금, 국부펀드 등)의 사업 참여율을 1.5%에서 5%로 확대 목표

3. 시사점

- 한국은 아프리카 ODA 사업 발굴 시, 인프라 개발 로드맵인 PIDA 우선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성 점검 필요
 - 아울러, PIDA 우선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아프리카 정부, 지역 공동체,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채널을 공고히 하여 공동 사업 개발 및 한국 기업 참여 기회 증진
- 한국 기업들은 PIDA 4대 부문(에너지, 교통, 수자원, ICT)에서의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수주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
 - 또한, EDCF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국제입찰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인프라 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
- 한국 ODA시행기관들은 효과적인 아프리카 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해 AfDB, JICA 등 PIDA 주요 협력파트너 및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
 - 또한,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융자, 민관협력사업(PPP) 등 상호협력 수단도 활용 가능

자 료 : PIDA Week 웹사이트(<http://www.au-pida.org/pida-week-2017-documents/>)

작 성 : 정 유 진, you2590@koreaexim.go.kr